

전남

무안 기업도시 개발자금 2800억 승인

군의회, 산업용지 분양 보증 안전 의결
한·중산단개발 내년 하반기 본격 착수

‘무안 기업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2800억원 규모의 자금확보 방안이 무안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중산단 개발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무안 기업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2800억원 규모의 자금확보 방안을 무안군의회가 26일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무안군이 요청한 한·중 미래도시개발사업의 금융자금조달(PF)을 위한 신용보증 안전을 의결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산업용지 분양이 낙관적이어서 우려하는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9월 국토 해양부에 제출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보살질차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는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모 부의장과 의원 2명도 계란 투척을 받았다. 이들의 군의회 난동은 군정에 대한 순수성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내 정치적 갈등의 표출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담양 죽녹원 ‘관광대박’

작년 121만명 이어 올 127만명 찾아 입장료 수입만 35억원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죽녹원에 올해 127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121만1600여명의 관광객이 죽녹원을 다녀간 데 이어 올해 지난달 말 기준 127만34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죽녹원과 연계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과 소쇄원 등 주요 관광명소의 유령세와 함께 대동밭과 떡갈비, 국수집 등 담양 시내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호황을 누리는 등 ‘죽녹원’이 담양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송파·성북구 등 전국 500개소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등에 급식자재로 납품하는 성과를 이뤘다. 담양군 관계자는 “버려진 내나 무밭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황금밭으로 탈바꿈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관광객이 죽녹원 ‘운수대통길’을 걸으면서 새해 소원을 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 죽녹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설경을 감상하며 죽림욕을 즐기고 있다.

목포시 임성 택지개발 본격 추진

188만7000㎡ 4257억원 투입 내년 지구지정 2016년 완공

목포시는 내년부터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임성지구는 지난 2000년 전남도 마스터플랜에 2차 사업지구로 선정, 무안군과 목포시가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은 전남개발공사와 옹종지구 등 도내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개발 여력이 없어 공동개발을 포기해 목포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이 보장되고, 사업이 완료 후에는 지가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늘어나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피해 토지는 매입의 ‘제3섹터 환지방식’으로 바뀌 추진키로 했다. 특히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투자비인 토지보상비 2453억원이 대폭 감소될 수 있어 총사업비가 2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추진이 훨씬 수월하다.

신안교육청 섬 학생 도시문화 체험 학습

소년소녀 가장 10명 초청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상욱)은 최근 관내 섬지역 섬드림 결연학생(소년소녀 학생가장) 10명을 초청해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MP3를 선물하며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에 전념해 주기를 당부했다.

문상욱 교육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섬지역 학생들을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 준공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사진)이 광양에 건립됐다. 광양시는 26일 장애인 체육관(광양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시 개장해 체육관 대관업무 등 체육관을 개방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시설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물론 재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재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체육 전국대회 개최 등을 통한 스포츠 명품도시로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얼굴 “현장위주·주민중심 치안행정”

안동주 해남경찰서장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동시에 현장위주·국민중심의 치안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안동주(56) 해남경찰서장은 “주민을 최우선으로 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수행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로 멋진 조직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장흥 출신인 안 서장은 지난 1977년 순경으로 경찰에 첫발을 내디딘 후 광주경찰청 청문감사관, 수사과장, 안도경찰서장, 고흥경찰서장, 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등을 역임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 물(매매)
토지600평건물4,000평(매가 210억)
보증금100억/월세5,000만원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 980평
-매매금액: 45억원

대인동삼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 옆 유지빌딩 501
오피스텔 상가
●시청앞 오피스텔상가(1층)분양가 이하 구매 1,174㎡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규모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